

제 280호 · 2014년 10월 29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KMI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CONTENTS |

글로벌물류이슈

1. 글로벌 콜드체인 물류시장 '친디아'(Chindia)의 급부상

물류정책·사업동향

1. 인도네시아, 연안항만 시설 부족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2. NYK, 미얀마 내륙운송 서비스 개시
3. FedEx, 전세계 31곳 조기 배송서비스 개시
4. 중국 의약품 콜드체인 물류 수요 증가

물류시장동향

1. Amazon, 투자확대로 3사분기 경영실적 악화
2. Rinchem, 아·태지역 물류 사업 확장

공지사항

1. E-learning을 활용한 프로젝트 화물 및 브레이크 벌크 전문교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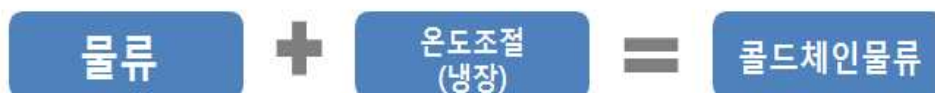
글로벌물류이슈

□ 글로벌 콜드체인 물류시장 '친디아'(Chindia)의 급부상

- 콜드체인이란 공급 사슬(supply chain) 내에서 부패하기 쉬운 농수산물 등 온도 민감성(temperature sensitive) 상품의 생산, 보관, 운송, 판매,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함
- 콜드체인에서는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보온, 냉동, 냉장 방법과 종합 운송을 보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물류 계획이 관건으로서 트럭, 화차, 냉동 or 냉장 화물선, 항공 등 다양한 운송 모드가 동원됨
 - 콜드체인은 보통 '신선 냉장 유통'이라고 통칭되며, 상품과 원산지/목적지, 그리고 유통의 세 가지는 콜드체인의 3요소로 꼽히고 있음
 - 한편 콜드 체인은 과학, 기술, 과정과 동일시되고 있음
 - * 상품의 부패성과 관련된 화학적,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전제함(과학)
 - * 공급 사슬의 전 구간에서 적절한 온도를 보장할 물리적 수단을 요구함(기술)
 - * 온도 민감성 상품의 준비, 보관, 운송, 모니터링 등 일련의 활동을 포함함(과정)

< 콜드체인의 개념과 콜드체인 공급 인프라 >

콜드체인이란?



콜드체인 공급 인프라



자료 : Welingkar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 & Research, Cold Chain Logistics, 2012.08.17.

- 국제 물류시장의 주요 콜드체인 상품으로는 바나나, 귤 등 과일류, 가금,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치즈 버터 등 낙농 제품, 그리고 각종 수산물 등이 있음
 - * 이외에 음료, 일부 화학제품, 의약품 및 화훼류도 중요한 품목으로 부상하고 있음
- 콜드체인 상품 중 국제적으로 가장 많은 거래되는 품목은 육류 및 가금류(2013년 기준 약 4천만 톤)이며, 다음이 수산물(2013년 기준 약 3천만 톤)임
- 콜드체인 시장이 주목받은 이유는 선진국, 개도국 경제 모두에게 경제 성장과 기업이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임
 - 농수산물 등 주로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 참여를 통해 소득 증대의 새로운 기회 창출이 가능함
 - 선진국 기업은 우수한 물류 인프라와 기술,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수익 창출 기회가 확대됨
- 최근 수년간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은 두자리 수의 가파른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고속 성장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0년간 전세계 냉장 화물 거래량은 약 5천만 톤이 증가함(연평균 성장률 3.6%를 기록)
 - * 이중 파인애플, 키위, 아보카도 등 이국품 과일류는 7.7%의 연평균성장률을 기록, 콜드 체인 품목 중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함
 -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의 총 매출 규모는 2011년 약 7백57억 달러에서 2017년 약 1천5백70억 달러로 6년간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 2013년의 한 전망에 따르면 2012~2017년 콜드체인 매출의 연평균성장률은 13.2%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었으나, 최근 새롭게 나온 전망 보고서는 2013~2018년 콜드체인 연평균성장률을 15.94%로 상향 조정됨¹⁾
-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해상 부패성 냉동 화물량도 2003년 7천1백60만 톤에서 2013년 9천8백10만 톤으로 증가함(연평균성장률 2.1%)
 - 냉동 화물 운송에는 특수 냉동선과 컨테이너선의 두 가지 모드가 사용되며, 특수 냉동선보다는 컨테이너선의 화물량이 증가하고 있음
-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요인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축 필요성의 증가 및 신흥 경제국들의 콜드체인 물류 수요 증가에 따른 것임
 - 콜드체인 물류시장은 당초 식품 안전 및 음식물 쓰레기 감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주목받기 시작 했음
 - 최근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식생활 및 기호의 변화 등으로 중국, 인도 등 신흥 경제국에서의 콜드체인 물류 수요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음

1) Sandler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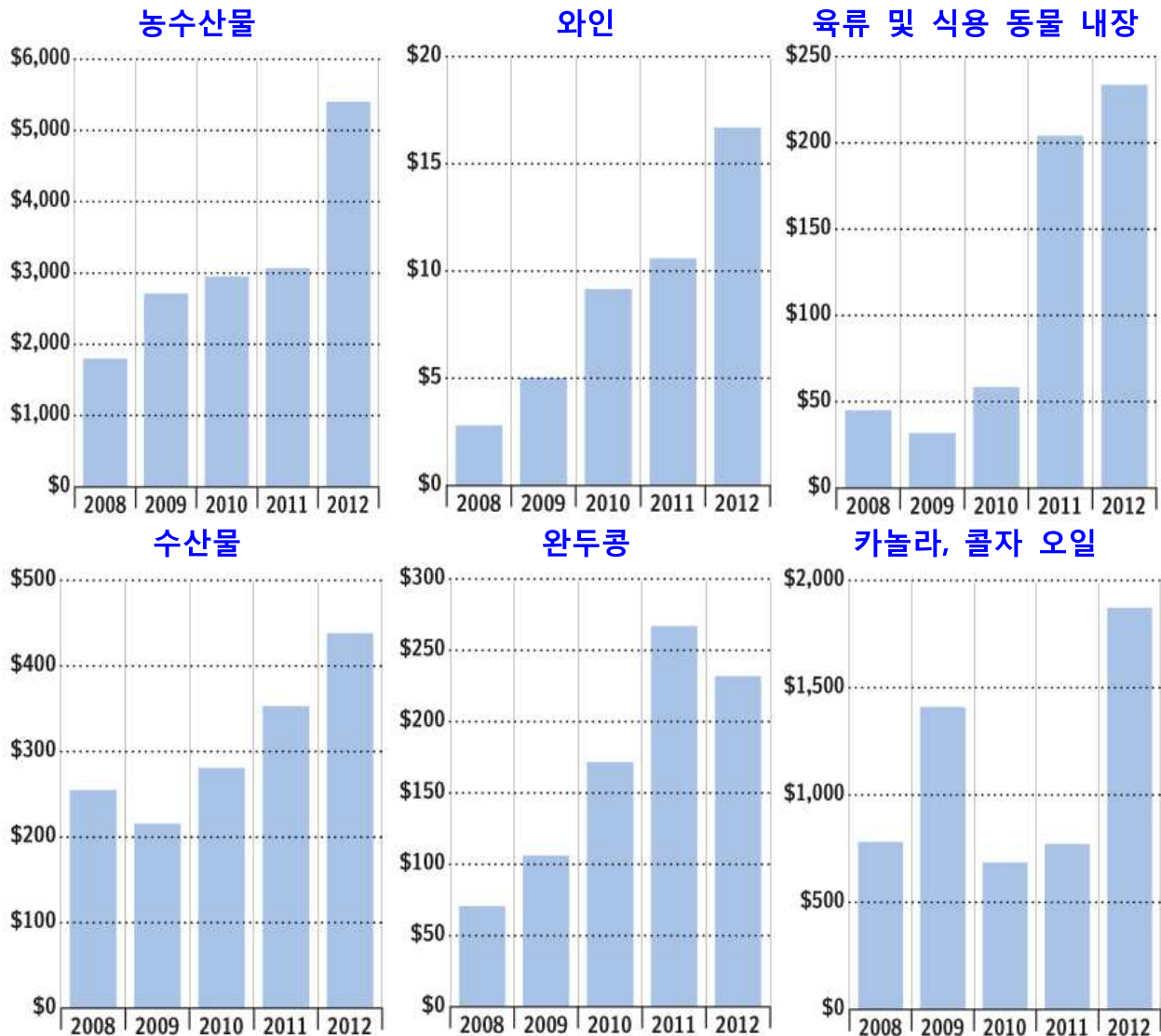
* 세계 부패성 냉동화물 주요 수입지역은 서유럽과 북미 지역이지만 세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5%에서 2013년 37%로 떨어짐

○ 중국은 글로벌 콜드체인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이머징 마켓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소비자 기호의 변화, e-commerce 및 택배 산업 확대, 글로벌 물류 기업들의 신선식품 분야 중국진출 붐과 결합하여 향후 글로벌 콜드체인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해외 식품 기호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의 수요 급증으로 최근 중국은 캐나다의 두 번째로 큰 농산물 및 수산물 수출시장으로 떠오름(대중국 수출액은 2008년 16억 캐나다 달러에서 2012년 약 50억 캐나다 달러로 급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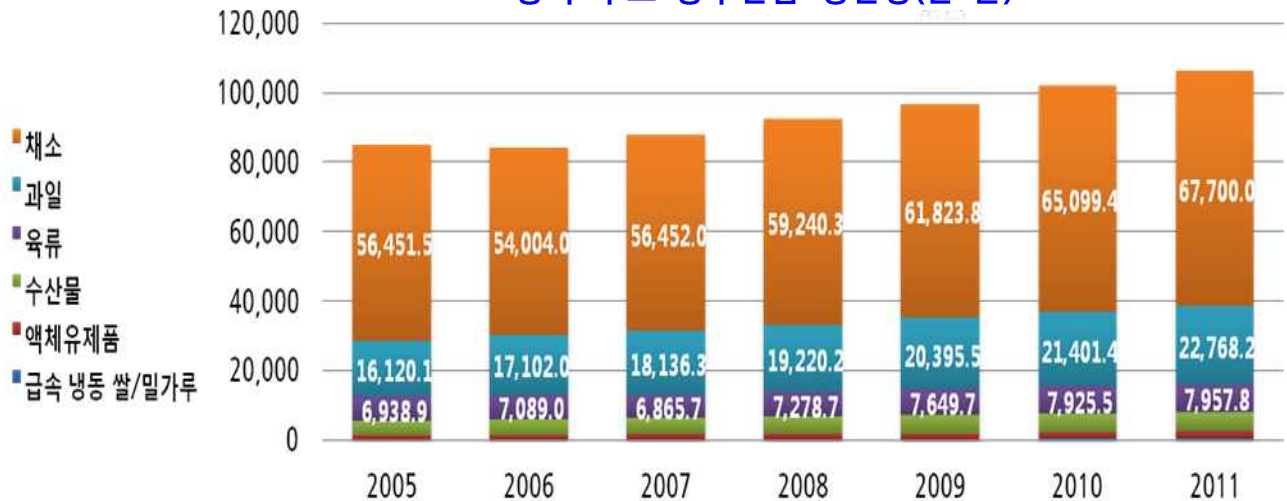
< 캐나다 콜드체인 식품의 대중국 수출 추이(단위: 백만 캐나다 달러) >



자료: Canadian VintNers Association, Statistics CANADA. www.Financialpost.com, 2013.06.08.

- 2013년 T-mall, JD, 아마존 등 세계 굴지의 e-commerce 기업들이 신선식품 영업을 개시함
 - * T-mall(티엔마오)은 의류, 구두 및 화장품 등 잡화류, 가전제품, 가구, 도서 등을 취급하는 종합 인터넷 쇼핑몰 업체임
- 콜드체인 사업을 시작한 물류업체로는 상하이 이귀(Shanghai Yiguo), SFbest, Too Too Farm 등이 있음
 - * SFbest(顺丰, 순펑)는 한국에 택배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해외 배송 및 구매 대행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함
- 중국의 채소 소비량은 세계 1위이며, 육류 소비량은 한국의 40배 등으로 대규모 콜드체인 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2005~2011 중국 주요 농수산물 생산량(만 톤) >



자료 : 중국 냉장물류 발전보고(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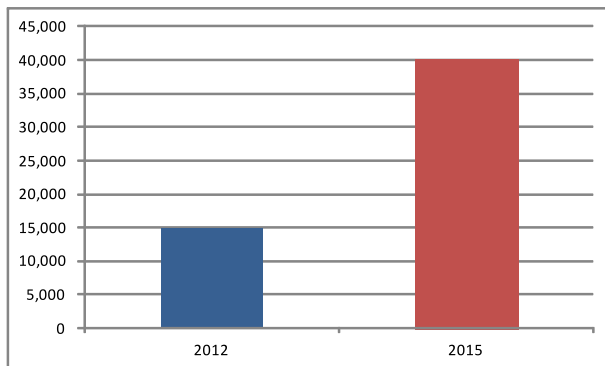
- 중국의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4백억~5백억 위안(2013년 기준)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2014~2018년 4년간 연평균성장률은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²⁾
- 중국의 콜드체인 산업은 2010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농산물 콜드체인 물류발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급격히 성장하기 시작함
- 콜드체인 물류를 진작하기 위한 우대 정책, 시장 수요의 급증, 냉동 및 보온 운반수단의 증가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³⁾
- 2011년 중국 국무원은 국가 물류 부문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령을 발표함
 - * 물류부문 투자 및 물류자원의 재분배, 물류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
- 2012년말 중국의 국가 통계에 따르면, 냉장(cold storage)창고의 총규모는 연 20%씩 급증해 총 8천5백35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 응결 창고 5천5백만㎡, 냉동 창고 3천만㎡, 초저온 냉장 18만㎡ 등

2) China Cold Chain Logistics Market Research Report 2014-2018.

3) China Cold Chain Logistics Industry Report 2013.

- 한편 인도의 콜드체인 시장은 20~25%의 높은 연평균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콜드체인 인프라가 뒷받침될 경우 매우 큰 성장 잠재력이 있음
 - 인도 콜드체인 시장규모는 2009년 32억 달러 수준에서 2015년 9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 인도는 농업 대국으로서 다양한 기후 조건과 농업에 유리한 일조량, 다채로운 농산물 경작 가능성 등의 잠재력이 풍부함
 - * 인도의 망고와 꽃양배추, 캐슈넛(cashew nut), 바나나 생산량은 각각 세계 생산량의 41%, 30%, 24%, 23%를 차지함
 - 반면 저장 시설 및 에너지 인프라 등의 부족으로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공률은 8%에 불과, 인도 전체 생산량(4천만 톤)의 약 40%가 매년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⁴⁾
 - 인도의 연간 육류 생산량은 4백90만 톤으로 세계 8위를 기록함
 - 수산물 부문에 있어서도 연간 약 6백90만 톤을 생산,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산 대국임

<인도의 콜드체인 산업규모>



자료 : India Brand Equity Foundation

<인도의 원료 상품 시설 가용률(2012)>

상품	콜드체인 처리능력(%)
감자	92.82
다목적	7.63
과일&야채	1.07
수산물	0.73
육류	0.15
유제품	0.68
그외(의약,생명과학)	0.36

자료 : Global AgriSystem Pvt. Ltd. Report.

- 인도는 열악한 인프라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세제혜택 등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음
 - * 콜드체인 시설 분야 자본 투자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소득세 150% 감면됨
 - * 콜드체인 시설을 위한 장비 수입시 관세율 5% 적용됨
- 중국과 인도의 콜드체인 시장의 성장 추세는 한국 물류 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함
 - 특히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의 경우, 식음료 및 농수산물, 가공상품 등에 대한 중국인의 기호를 철저히 분석해 상품화한 뒤 확장되고 있는 중국의 e-commerce 및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수출 화물을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 인도는 심각한 음식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콜드체인 물류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조직에 식품가공산업부(Ministry of Food Processing Industries)를 별도로 두고 있음.

- 중국 소비자의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고, 중국 당국의 식품 안전 규제가 강화될 경우 우리나라 농수산물 및 가공 제품의 수출 기회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 * 수출 증대 정책과 수출 화물 창출 노력, 콜드체인 물류 기술의 고도화 등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콜드 체인은 과학이자 기술이요, 과정이라는 공식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인도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감축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어 강력한 콜드체인 인프라 구축 정책 및 해외 투자 유치 정책을 펴고 있는 만큼, 이를 우리나라 콜드체인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 인도의 콜드체인 품목은 대부분 동남아로 수출, 현지에서 가공후 재수출되고 있는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식품 가공공장과 콜드체인 물류 업체가 협업하는 방안 모색 필요)

자료 : www.seafoodsource.com, www.financialpost.com, www.marketandmarkets.com, Drewry - Reefer Shipping Market Review & Forecast 등

박성준 전문연구원 (☎ 02-2105-2973, sjpark@kmi.re.kr)

양규석 연구원 (☎ 02-2105-2928, yks8065@kmi.re.kr)

물류정책 · 사업동향

□ 인도네시아, 연안항만 시설 부족이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 인도네시아는 해상무역을 위한 항만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지체되고 있음
 - 최근 인도네시아 인프라 이니셔티브(Indonesian Infrastructure Initiative)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1만 7천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전체 화물량의 4%만이 해상을 통해 운송되고 있음
 - 이는 시설 부족으로 인한 인도네시아 연안항만의 낮은 생산성 및 그에 따른 고비용 구조에 기인함
-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McKinsey & Company)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 연안 항만의 생산성은 국제 무역항 대비 50%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예를 들면 항만시설 부족으로 인한 체선 및 상습적인 화물도착 지연으로 인해 화물선이 자카르타 연안항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평균적으로 3일을 기다려야 하고, 르바란(Lebaran)⁵⁾같은 휴일 기간에는 15일까지 기다려야 함
 - 이로 인해 실제 도로로 운송할 경우 최대 4~5일 소요되는 거리가 해상으로 운송 시 9~25일 까지 소요되고 있음
 -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해상운송은 예측이 어렵고 운송비용도 높아 인도네시아 주요 기업들은 수마트라에서 자바 같은 장거리 운송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화물을 도로를 통해 운송하고 있음
 - 또한 반드시 해상을 통해 운송을 해야 할 경우, 기업은 장기간의 운송시간에 대비해 많은 재고를 보유해야 하고, 이는 인도네시아 물류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물류비를 줄이고,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서는 연안 항만에 대한 시설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동시에 항만 내 화물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고효율의 항만장비 및 시설에 대한 투자 및 항만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선박의 대기시간 감축이 가능함
 - 실제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게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세관서류를 제출하게 할 경우 선박의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음
 - 또한 화물선적 지연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여 화물이 항만 내에 오랜기간 쌓여 있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자료 : www.lloydsloadinglist.com, 2014.10.14.

전형모 전문연구원 (☎ 02-2105-2817, hmjeon@kmi.re.kr)

5) (회교의)금식 기간이 끝나는 명절 (Idulfitri); 이슬람력 10번째 달 '샤왈'의 초하루.

□ NYK, 미얀마 내륙운송 서비스 개시

- 일본 해운·종합물류기업인 NYK가 10월 14일 부터 미얀마 현지 협력사인 Silverbird Auto Logistics와 함께 완성차 내륙 운송 서비스를 시작함
 - NYK는 2011년부터 일본~양곤간 월 2항차 자동차 전용선(PCC) 운항 및 창고, 출고전 검사(PDI), 통관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이번 내륙 운송을 개시함에 따라 미얀마의 종합물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됨
 - Silverbird Auto Logistics는 미얀마 Phee Group의 자회사로서⁶⁾, 2015년 NYK와 Phee Group은 현지 합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임
- 미얀마 자동차 시장은 전통적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중고차 시장 중심이었으나, 최근 경제 성장과 함께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신차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함
 - 미얀마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NYK는 자동차 물류를 포함한 미얀마의 고부가가치 물류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임
 - 2014년 4월, NYK는 새로운 중기(2014~2018년) 경영계획인 'More Than Shipping 2018-Stage 2'를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자동차 물류 부문에서 새로운 이머징 마켓 진출 및 서비스 네트워크 확대를 제시함⁷⁾
- 미얀마는 최근 세계적인 신흥 투자지로 각광받고 있으며, Damco, UPS 등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진출도 이어지고 있음
 - Damco는 올 상반기부터 미얀마 최초의 국제표준 창고 및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UPS 역시 지난 8월부터 미얀마에서 수출입 물류서비스를 시작함
 - IMF는 2014~2015년 미얀마의 잠재성장률을 8.5%로 전망했으며, 미얀마가 신흥 시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화물 운송서비스 수요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www.lloydsloadinglist.com, 2014.10.14.

김세원 연구원 (☎ 02-2105-2982, ksw@kmi.re.kr)

6) Phee Group은 1993년 미얀마에 설립된 종합물류기업으로 현재 미얀마,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해운 대리점, 해운, 3PL, 창고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www.pheegroup.com.

7)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전용선대를 보유하고 있는 NYK는 올 1월 카자흐스탄 최대의 자동차 터미널 Tranco Terminal 지분 100% 인수, 6월 멕시코 자동차 물류기업 CSI Group 지분 30% 인수 등 최근 자동차 물류부문에서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음. www.nyk.com.

□ FedEx, 전세계 31곳 조기 배송서비스 개시

- FedEx는 조기 배송 서비스 "International First"의 대상지역을 확대할 방침임
 - 추가된 서비스지역은 오스트리아, 바레인, 벨리즈, 볼리비아, 중국, 체코, 덴마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핀란드,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온두라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니카라과, 노르웨이,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포르투갈, 폴란드, 싱가포르, 수리남, 스웨덴, 태국, 아랍 에미리트 등임
 - 대상지역의 확대로 서비스 지역은 총 97곳이 되었으며, 고객들은 FedEx를 통해 해당 지역에서 화물을 더욱 빠르게 운송할 수 있게 되었음
- 대상시장의 확대는 FedEx의 글로벌 성장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데, 고객의 요구보다 앞선 진출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임
 - FedEx의 커뮤니케이션·마케팅 부문의 Raj Subramaniam 글로벌 전략 부사장은 최근의 서비스 확장은 시간에 민감한 까다로운 화물을 수송할 필요가 있는 고객에 대해 FedEx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함
- FedEx의 International First 대상지역에서 화물 접수 및 배송이 이뤄질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3일내 운송이 가능함
 - 본 서비스는 비즈니스 문서, 전자제품과 같은 첨단 제품, 의료기기, 임상시험, 엔터테인먼트산업용 기기와 같이 배달 시한이 촉박한 화물이 대상임
 - FedEx는 배송의 정시성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 및 지역별 화물 수취마감시간을 공지하고 있으며, 배송은 미국이 오전 8시, 유럽은 오전 9시 그리고 아시아와 캐나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됨
 - International Firs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화물 패기지당 크기가 150lbs를 넘지 않아야 하지만 전체 화물총량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환불 보증 서비스, 반송서비스가 포함된 화물운송서비스와 같이 확장된 서비스도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음
 - International First는 선적 가능한 제품과 대상지역이 넓고 시간에 민감한 화물을 제한된 시간안에 배송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화주들에게 합리적인 선택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www.bizjournals.com, fedex.com, 2014.10.27.

이홍원 연구원 (☎ 02-2105-2897, hongwon@kmi.re.kr)

□ 중국 의약품 콜드체인 물류 수요 증가

- 최근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쿼브(Bristol-Myers Squibb)사⁸⁾는 중국 우시(Wuxi)⁹⁾에 콜드체인 저장 시설을 개장함
 - 1,000만 달러가 투자된 이 시설은 수입 바이오 의약품들을 재유통하고 중국 바이오 의약품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중국 의약품 시장은 인구 노령화로 인해 성장하고 있음
 - 중국의약품보건품수출입상회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바이오 의약품산업의 매출액은 280억 9,200만 달러로 2011년 대비 18.4% 증가함
 - 바이오 의약품산업은 중국정부가 12차 5개년 개발계획(2011~2015)을 통해 육성하는 7대 핵심 산업으로 선정됨
 - 현재 중국에는 400개 이상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기업이 있으며 매출액 기준으로 2012년 바이오 의약품 산업은 중국 의약품시장의 5%를 차지함
- 중국 의약품 시장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회사는 콜드체인 물류시설을 확장하고 있음
 - 올해 초, Fedex는 상하이 국제허브에 건강관련 제품을 위한 시설을 확장함
 - 이 시설은 의료장비, 생물학적 재료와 의약품 저장을 위한 특수 수요 및 제약회사의 유통 수요를 충족시킴

<중국의 상위 6개 의약품 산업단지>



자료 : www.gscintell.com.

8) 의약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미국 국적의 세계적인 제약회사임.

9) 중국 장쑤성 남부에 있는 도시임.

- 2013년 의료 전문 물류기업인 Marken¹⁰⁾은 중국 베이징에 새로운 의약품 창고를 건설함
 - 시설은 베이징 캐피탈 국제공항 옆에 위치하며, 면적은 850m²임
 - 이 시설은 GMP(Good Manufacture Practice)¹¹⁾를 준수하는 온도 조절 저장뿐만 아니라 임상 시험 공급유통서비스를 제공함
- 중국의 바이오 의약품 수요 증가로 의약품 콜드체인 물류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Roland Berger Strategy Consultants¹²⁾는 콜드체인 물류 수요가 매년 25% 증가하여 2017년에는 77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이중 농산품 및 전자상거래가 콜드체인 물류시장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의약품 또한 백신과 혈액제제의 운송, 유통과 저장의 수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콜드체인 물류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비스톨-마이애스 스쿼브의 콜드체인 저장시설 개장은 중국 GSP(Good Supply Practice)¹³⁾를 준수하여 국가급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물류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줌
 - 물류회사가 콜드체인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콜드체인 분야의 지식과 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함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4.10.23.

양규석 연구원 (☎ 02-2105-2928, yks8065@kmi.re.kr)

10) 글로벌 의료 공급사슬 서비스 회사로 의약품과 생명과학 산업의 사업을 하고 있음.

11)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임.

12) 전 세계 36개국 51개 사무실을 가진 글로벌 전략 컨설팅회사로 본사는 뮌헨에 있음.

13) 우수 의약품 유통 관리 기준임.

물류시장동향

□ Amazon, 투자확대로 3사분기 경영실적 악화

- Amazon의 3사분기 순매출은 20.4% 증가한 반면, 운영비용은 23.4% 증가하며 경영실적이 악화됨
 - Amazon 경영실적 발표에 따르면, 약 4억 3,700만 달러의 분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Amazon은 미 동부 해안에 위치한 브루클린에 Amazon Fresh Service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제품 출시와 Web Service 확장 등 물류 부문에 많은 자본을 투자함
 - 또한 기존 경쟁업체인 Google, Apple, Alibaba, Paypal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인도,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등에 대한 네트워크 투자가 진행되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Amazon은 순매출이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경영실적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미국 뿐 아니라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Amazon의 지속적인 투자는 고객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향후 Amazon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4.10.27.

민경창 연구원 (☎ 02-2105-2741, kcmin0525@kmi.re.kr)

□ Rinchem, 아태지역 물류 사업 확장

- 화학 물류기업인 Rinchem이 대만의 Chimei Logistics를 인수함
 - Rinchem은 Chimei사의 창고, 운송 시스템 등을 인수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함
 - 이번 인수를 통해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지역에서 증가하는 화학물질 및 가스 등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Rinchem은 대만의 타이난 과학 공원(Tainan Science Park)에 3만 6천 ft²의 물류 시설을 소유하게 되며, 이 시설은 대만에서 가장 큰 가오슝 항만(the port of Kaohsiung)과 가까워 전략적인 입지로 평가 받고 있음
 - 물류 시설 인수 외에도 운송차량과 물류 정보 시스템을 확충하고 직원, 전문가 등을 충원할 계획임
 - 현재 Rinchem은 북미, 아시아, 유럽, 중동 지역에서 반도체, 화학, 페인트, 석유, 가스 등 다양한 산업계에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4.10.12

김은미 연구원 (☎ 02-2105-2835, usea1004@kmi.re.kr)

[E-learning을 활용한 프로젝트 화물 및 브레이크 벌크 전문교육]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아래와 같이
'프로젝트 화물 및 브레이크 벌크 전문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4년 11월 3일(월)~4일(화) 9:00~18:00(2일)
- 장소 : 전경련회관 타워 3층 (회의실 '파인')
- 주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국제물류협회
- 후원 : 글로벌 물류기업 CEO 포럼
- 교육 프로그램
 - 11월 3일 월요일

시간	주요 내용	비고
09:00~09:20	Registration	
09:20~09:30	개회사 및 환영사	임진수 KMI 부원장
09:30~09:45	글로벌 물류동향 및 전망	이성우 실장
09:45~10:00	중견 물류기업의 해양플랜트 물류시장 진출 방안	신석현 우주해운항공 부사장
10:00~10:50	Breakbulk Market Trends	Capt. Arun Ukamanal
10:50~11:00	커피 브레이크	
11:00~12:00	Chartering & insurance	Capt. Arun Ukamanal
12:00~13:30	점심	
13:30~15:30	ODC Force and Lever I	Capt. Arun Ukamanal
15:30~15:45	커피브레이크	
15:45~17:30	ODC Force and Lever II	Capt. Arun Ukamanal

- 11월 4일 화요일

시간	주요 내용	비고
09:00~09:20	Registration	
09:20~10:40	Proper Blocking & Bracing	Capt. Arun Ukamanal
10:40~10:50	커피브레이크	
10:50~12:00	Cargo Operations of Vessels	Capt. Arun Ukamanal
12:00~13:30	점심	
13:30~15:15	Road Operation	Capt. Arun Ukamanal
15:15~15:30	커피브레이크	
15:30~17:00	Case Study	Capt. Arun Ukamanal
17:00~17:30	질의 응답	
17:30~17:50	Award of certificates	
17:50~18:00	Closing Ceremony	

※ 프로그램 변동 가능

○ 참가신청 : 2014년 10월 30일(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를 아래 담당자의 이메일로 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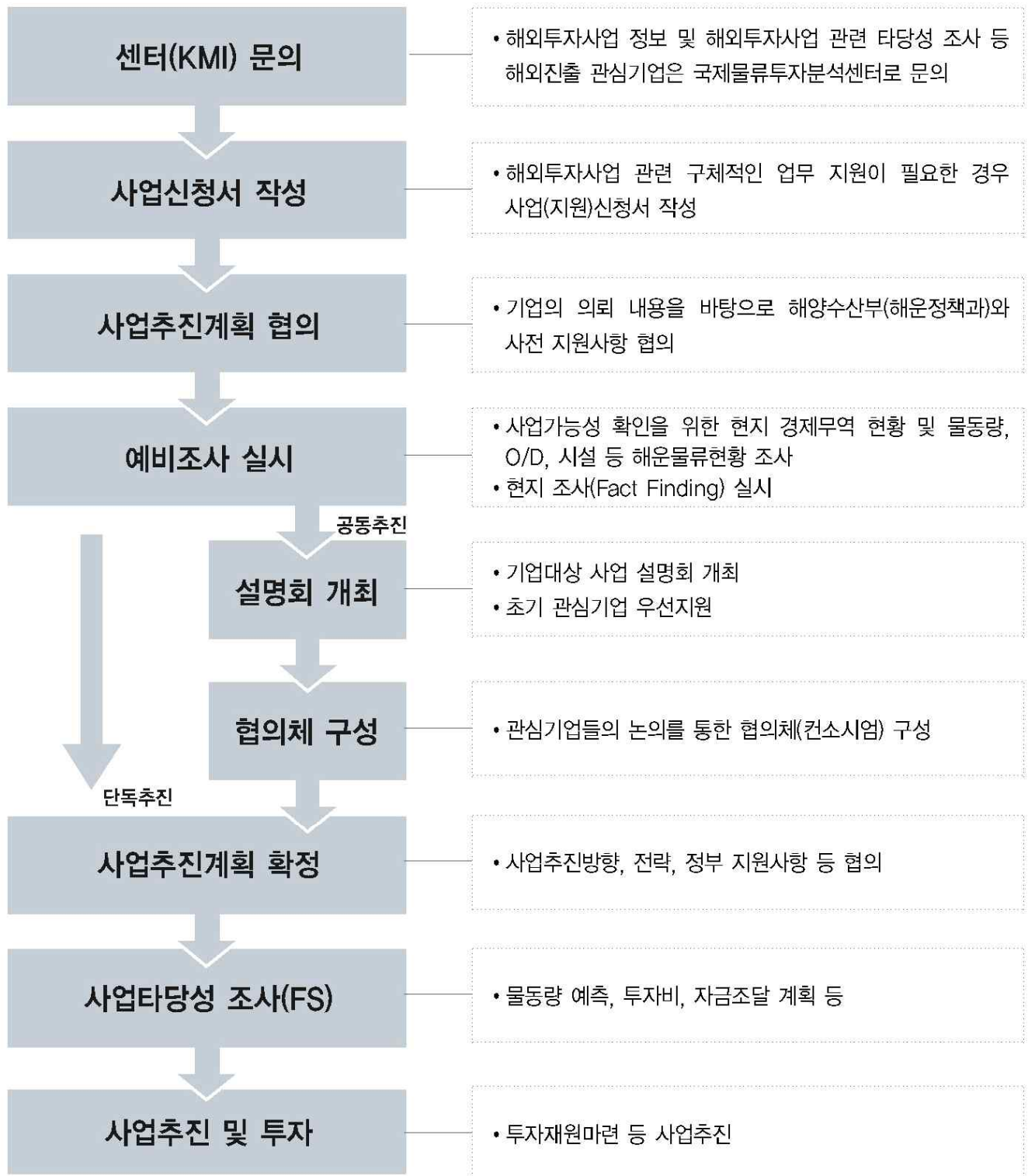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세원 연구원(T. 02-2105-2982, ksw@kmi.re.kr),
- 한국국제물류협회 임택규 차장(T. 02-733-8000, itg@kiffa.or.kr)

※ 본 교육은 좌석이 한정된 관계로 선착순 참가접수를 받을 예정이므로, 관심 기업은 위의 이메일로 반드시 참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워딩, 하역, 운송 등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하신 분에게 적합한 워크숍입니다.

※ 동 교육은 영어로 진행됩니다.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